

조선사회과학자협회

통 보



1

2020

차 례

1. 인민대중제일주의로 한생을 빛내여오신분	3
2. 만민의 다함없는 흡모와 칭송을 받으시는분	5
3. 투자를 아끼지 말라	8
4. 오늘의 조선	
1) 조선로동당의 령도력	9
2) 조선의 군민대단결	11
3) 조선에서 세금제도는 언제 폐지되었는가	12
4) 순천린비료공장이 화학공업부문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섰다	13
5) 조선에서 전반적무료의무교육제는 언제 실시되었는가	14
6) 조선에 190여개의 기술고급중학교가 새로 나왔다	15
7) 조선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는 언제 실시되었는가	16
8) 평양산원에서 500번째 세쌍둥이가 태여났다	17
9) 조선에서 예견성있는 조치를 취하고 전체 주민이 국가의 비상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할수 있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18
10) 조선에서는 『COVID-19』를 막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있는가	20
11)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에서 원시동굴유적 새로 발굴	22
5. 좌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의 특징에 대하여	24
6. 실화	
조선에서 신랑신부와 사진을 찍다	28

7. 여러 나라 인사들의 목소리

1) 김정일동지는 어떻게 되여 세계의 존중을 받으시는가.....	30
2) 김정은령도자의 정치방식.....	31
3) 2월의 명절파 건군절에 즈음하여	32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사회주의나라	33
5) 인민의 꿈과 리상이 현실로 꽂혀나는 나라.....	45
6) 조선은 행성의 미래	46
7)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천만금의 재부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조선	47
8)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후대교육정책	48
9) 주체사상이 왜 아프리카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유일한 지침으로 되는가	50

8. 소식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8돐에 즈음하여 -영국에서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	53
2) 《김일성주석과 조선의 자강력》 -방글라데슈에서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	54
3)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	54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 38돐에 즈음하여 -영국에서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	55
5) 《현 세계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당성과 역할》 -아시아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	56
6) 《주체사상과 자력갱생》 -라틴아메리카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	57
7) 《주체사상과 집단적자력갱생》 -우간다주체사상 인터네트전국토론회 진행 -.....	58
8) 자주, 민주, 발전에 관한 주체사상전국토론회 -민주꽁고에서 진행 -	58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 -별가리에서 토론회 진행 -.....	59
10)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창립 35돐을 기념하여 -아프리카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	60

인민대중제일주의로 한평생을 빛내여 오신 분

리성철

인민대중의 운명개척과 세계정치사의 갈피에는 민족을 위해 싸웠다는 『영웅호걸』도 많았고 인민의 지도자로 불리우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처럼 인민을 위한 정치에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린 위대한 정치가는 없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김일성동지의 한생은 이민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꽂피우신 인민적수령의 숭고한 한생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대중을 역사의 주인으로 내세우고 인민대중의 존엄과 가치를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주신 인민의 수령이시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리념, 드팀없는 정치적신념은 인민대중을 정치의 주인으로 보고 정치가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에게 있어서 인민대중은 언제나 스승이였다. 인민들속으로 들어가는것으로부터 시작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활동은 언제나 인민대중을 터전으로 하여 진행되고 그 전과정이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데 바쳐졌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이 사상리론으로, 조선과 정책으로 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침이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튼튼히 의거하시였기에 단 한번의 로선상착오나 실패도 없이 여러 단계의 어렵고 복잡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시였다.

인민대중의 지위와 존엄이 오늘처럼 최상의 경지에 올라선 때는 일찌기 없었다. 희세의 탁월한 수령을 높이 모시여 지난날 역사밖에 밀려났던 인민대중이 시대와 역사의 중심에 서서 자기 운명을 자기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역사의 새시대, 주체시대가 펼쳐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애민헌신의 길을 끊임없이 걸고걸으시며 조선인민에게 끝없는 행복을 안겨주신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은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의 근본원리이고 기본핵이며 근본바탕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모든 사색과 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인민에 대한 사랑이 놓여 있었다.

조선의 그 어디에 가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로고가 뜨겁게 깃들어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인민들의 축복을 받으셔야 할 생신날에마저 험한 농촌의 두령길을 걸으시며 농장원들과 농사일을 의논하시였다.

오늘도 조선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 안겨 행복한 삶을 누려오던 영광의 나날들을 추억하며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하고 빛내여나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뜨거운 인정미와 한없이 겸박하고 소탈한 품성을 지니시고 인민들을 따뜻이 대해주고 보살펴주신 대성인이시다.

인류력사는 위대한 수령님처럼 고결한 인품과 덕망을 지니신 위인을 알지 못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적들앞에서는 백두산호랑이와도 같으신 강철의 령장이시였지만 인민들과 전사들앞에서는 더없이 친근하고 다정한 친아버지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어린이와 이야기할 때에는 어린이의 심정이 되여주시고 로인들과 이야기할 때에는 허물없는 친구가 되여주시였으며 다심한 어머니와도 같이 사람들의 속생각까지 다 헤아려주시였다. 로동자들을 만나시면 그들의 기름묻은 손을 허물없이 잡아주시고 농촌에 가시면 빨머리에서 농민들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시였으며 사람들을 만나 담화하실 때에는 통담도 즐겨하시고 유모아와 생활적인 말씀도 해주시며 친부모의 사랑과 정을 부여주시였다.

한평생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어떤 특혜와 특전도 허용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인민들과 같이 겸허하고 소박하게 생활하시였다. 하기에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과 인민들사이에는 한치의 간격도 없었다. 인민들이 조밥을 먹을 때에는 우리도 조밥을 먹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잡곡밥을 드시고 옥류판을 찾으시여서는 평양랭면의 맛을 보아주시고 자신께서 드신 국수값까지 물어주도록 하신분이 위대한 수령님이시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한생을 초불처럼 태워오신 자애로운 인민의 수령이시다.

만민의 다함없는 흠토와 칭송을 받으시는분

김영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시대와 인류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고 특출한 위인상으로 만민의 심장을 틀어잡으신 대성인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탁월한 선군혁명령도로 조국과 혁명,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국제친선전람관에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세계 170개 나라와 국제기구들, 개별적인사들이 올린 수만점의 선물들이 전시되어있다. 선물들은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령도, 한없이 고매한 덕망으로 조선혁명과 세계 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신 결출한 사상리론가,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경모심의 분출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탁월한 사상으로 시대와 인류의 앞길을 밝히시여 인류의 다함없는 흠토와 칭송을 받으시는 결출한 사상리론가이시다.

혁명의 령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혁명의 지도사상을 창시하고 발전시켜 인류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는것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리혜안의 예지와 과학적인 통찰력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로,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정식화하시고 더욱 발전풍부화하시여 시대와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쏘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의 붕괴가 인류의 건전한 리성을 마비시키고 좀먹고있을 때 사회주의의 과학성과 진리성, 승리의 필연성을 철의 론리로 증명하시여 세계사회주의위업의 명맥을 지켜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다.

조선인민은 사상리론의 천재이신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어디서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자그마한 탈선도 없이 곧바른 승리의 한길로 걸어올수 있었으며 세계의 진보적인민들도 위대한 장군님을 암흑의 대지에 밝은 빛을 뿌리는 태양으로 우러르며 그이의 사상에서 자기의 나아갈 길을 찾고있다.

에짚트의 한 인사는 주체의 빛발로 온 세계를 향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상리론적 예지에 매혹된 자기의 마음을 담아 그이를 《온 우주를 비치는 태양》, 《영원히 빛나는 태양》으로 노래한 헌시를 삼가 선물로 올렸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핀란드, 나이제리아 등 세계의 많은 나라의 인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받아안고 나아가려는 굳센 의지를 선물마다에 담아 드렸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로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인류의 다함없는 흄모와 칭송을 받으시는 희세의 정치원로이시다.

지난 세기말 제국주의연합세력은 《사회주의종말》에 대하여 요란하게 떠들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압살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거기에 경제적 난관과 파국적인 자연재해로 하여 조선인민은 류례없는 고난과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다.

온 세계의 초점이 조선으로 향하고 있던 그때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사회주의의 가치를 더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연합세력의 반사회주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시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안전은 물론 세계평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

국제친선전람관을 참관한 로므니아사회주의당 위원장은 《선물들은 사회주의 위업의 전진과 평화를 위하여 위인들이 이룩한 업적의 증거로 된다.》라는 글을 남겼다.

참으로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인류의 열렬한 칭송은 조선을 사회주의의 보루, 자주의 나라로 빛내여주시고 자주와 정의로 세계정치를 주도하신 결출한 령도자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의 분출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만민을 품어안는 고결한 인품과 덕망으로 하여 인류의 다함없는 흄모와 칭송을 받으시는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사람들이 위인에게 매혹되는 것은 사상이나 철학, 경력에 앞서 풍모가 위대하기 때문이다. 정치철학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풍모가 고결하지 못하면 그러한 정치가는 만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국제친선전람관에는 만민을 따뜻이 품어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의 세계에 매혹되어 그이를 영원히 따르려는 마음을 담아 드린 선물들도 수많이 전시되어 있다. 그중에는 전 팔레스티나국가 대사부부가 올린 선물도 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선에 와서 사업하던 팔레스티나국가 대사부부가

결혼하여 10년동안이나 자식이 없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안해가 평양산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그리고 귀여운 딸애가 태여났을 때에는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진달래』라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였다. 후에 대사부부는 위대한 장군님께 충직한 딸이 되겠다는 진달래의 결의를 담아 성장한 그의 사진을 선물로 드렸다.

오늘도 세계의 수많은 인사들이 위대한 장군님께 드리는 지성어린 선물들에는 위대한 장군님을 인류의 태양으로 영원히 모시고 따르려는 세계인민들의 마음이 결코 강요나 요구로써는 지어낼수 없는 가장 뜨겁고 진실한 흡모의 정이라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참으로 만민의 다함없는 흡모와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이 세상 어느 위인도 따를수 없는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신 인류의 영원한 태양이시다.

투자를 아끼지 말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건산소공장건설현장을 찾으시였던 그날은 2016년 5월의 어느 일요일이였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의료용산소생산을 위해 공장건설을 발기하시고 일요일의 휴식마저도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가슴속에는 뜨거운것이 솟구쳐 올랐다.

그러나 일군들은 인민을 위하시는 경애하는 그이의 사랑과 정의 세계가 얼마나 크나큰것인가를 미처 다 알수 없었다.

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벌써 공장의 체모가 안겨온다고 못내 만족해하시며 일군들에게 보건산소공장을 세계에 둘도 없는 공장으로 건설하자고 절절히 말씀하시였다.

이윽고 공장건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신 그이께서는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의료상혜택이 인민들에게 더 잘 미치도록 하자면 보건부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보건산소공장과 같은 현대적인 의료용산소생산기지를 나라의 여러 지역에 일떠세울수 있도록 은정깊은 조치도 취해주시였다.

투자를 아끼지 말라!

인민의 행복을 위함이라면 저 하늘의 별이라도 따오고 돌우에도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뜻이 어린 귀중한 가르침이였다.



오늘의 조선

조선로동당의 경도력

한 규 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조선로동당은 혁명적당건설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면서 위대하고 존엄높은 김일성-김정일주의당으로 강화발전되어 주체혁명위업을 빛나는 승리의 한길로 령도하여왔습니다.』

조선로동당의 경도력은 우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일심단결의 정치사상강국으로 건설해나가고있는데서 파시되고있다.

단결은 한 나라, 한 민족에 있어서 생명과 같다.

한 나라, 한 민족의 일심단결을 실현하자면 전체 인민을 하나의 사상의지로 숨쉬고 움직일수 있게 하는 위대한 단결의 사상이 있어야 한다.

조선인민은 탁월한 수령을 모시여 위대한 주체사상을 국가정치철학으로 확립하고 국가건설과 활동전반에 철저히 구현하여왔다. 사회주의사회의 본성적 요구에 맞게 사상사업을 확고히 앞세우고 혁명발전의 매 단계마다 온 사회에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투쟁을 심화시켜온 조선로동당의 혁명한 경도가 있었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세상에 둘도 없는 공고한 정치사상적 통일과 단결을 이룩할수 있었다.

주체사상을 신조로 삼고 당정책을 신념화한 전체 인민의 영웅적투쟁에 의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세계사회주의체계가 무너지고 제국주의련합세력의 반동공세가 집중된 속에서도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고수할수 있었으며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한 세상에 둘도 없는 일심단결의 나라로 그 존엄과 위상을 만천하에 떨칠수 있었다.

조선로동당의 경도력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자립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자위적국방력을 갖춘 강력한 사회주의국가로 건설해나가고있는데서 파시되고있다.

국가의 자주권을 견지하고 지속적발전을 도모하자면 자체의 든든한 경제력과 국방력이 있어야 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당의 령도밑에 강위력한 자립적민족경제와 자위적 국방력을 갖춘 기적의 나라, 최악의 시련과 난관을 자체의 힘으로 맞받아나가면서 강국건설위업을 확신성있게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나라로 될수 있었다.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처럼 경제와 국방의 병진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성과적으로 실현한 나라를 알지 못하고있다. 지난날 대국주의자들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와르샤와조약기구에도 들고 쎄브에도 들라고 압력을 가하여온적이 있었다. 하지만 조선로동당의 원칙적립장은 시종일관하였다. 만일 그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와르샤와조약기구나 쎄브에 들었더라면 동유럽나라들과 다름없는 운명에 처하지 않을수 없었을것이다.

오늘 적지 않은 나라들이 큰 나라들의 상품시장, 무기시장으로 전락되고있을 때 자위적국방공업의 토대를 구축하고 나라방위에 필요한것을 자급자족하는 나라는 오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력은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계승성이 확고하고 전도양양한 불패의 강국으로 건설해나가고있는데서 과시되고있다.

국가의 힘과 위상은 국가정치체계의 계승성에 의하여서만 대를 이어 떨쳐질수 있다. 건국초시기에는 강대하고 번영하였던 나라라고 하여도 혁명의 대가 바뀌는 때에 국가정치체계를 옳게 이어나가지 못하면 국력이 쇠퇴해지는것은 물론 나라가 망하게 된다.

사소한 편향이나 우여곡절도 없이 국가정치체계의 계승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여 국가의 힘과 위상을 만방에 떨쳐가고있는 나라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도 한때 종파가 나타나 못된짓을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조선로동당이 령도의 계승문제와 혁명전통계승문제, 후비대를 키우는 문제를 특별히 중시하고 커다란 힘을 넣어온것으로 하여 공화국의 정치체계는 굳건하였으며 야심가, 음모군들의 그 어떤 책동도 통할수 없었다.

오늘 세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눈부신 발전에 대해서도 경탄하고 있지만 강력한 국가정치체계가 편파없이 계승되고있는데 대하여 더 부러워하고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느 국가도 해결하지 못한 국가정치체계의 계승성문제를 빛나게 해결할수 있는 요인은 조선로동당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에 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위대한 당의 령도를 받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조선의 군민대단결

조선의 군민대단결은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발휘되는 인민군대의 혁명적인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에 기초한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의 혁명적 단결이다.

조선의 군민대단결은 인민들과 인민군장병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따라 혁명의 한길을 걸어나가는데서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일단 유사시에 한전호에서 생사를 같이하는데서 그리고 인민군장병들은 인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목숨바쳐 보위하고 인민은 인민군군인들을 친혈육처럼 사랑하며 성심성의로 원호하는데서 높이 발현되고 있다.

최근년간 조선로동당의領導밑에 조국강산을 진감시키며 련이어 일어난 눈부신 기적은 그 어느것이나 다 군민대단결의 산물이다.



조선에서 세금제도는 언제 폐지되었는가

1974년 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폐지할데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1974년 3월 21일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법령이 채택되었고 4월 1일부터 철저히 실행되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다. 세금없는 나라는 세상에 오직 조선뿐이다.

돌이켜보면 조세제도, 세금제도는 국가발생과 함께 생겨났으며 수천년동안 지배계급의 통치기구를 유지하고 인민들을 략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왔다. 세금은 오늘도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서 국가재정수입의 기본원천으로 되고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세금의 완전한 철폐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못하고있지만 조선에서는 46년전에 벌써 세금제도가 완전히 폐지되어 조선인민은 세금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살아오고있다.

세금없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조선의 사회주의가 인민의 행복의 요람임을 뚜렷이 말해주는 위력한 현실적증거이다.

세계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일본의 《마이니찌신봉》은 이렇게 전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나라 조선은 세계에서 세금이 없는 첫 나라로 되였다. 세금이 없는 나라의 출현, 이것은 계급사회와 더불어 내려오면서 수억만 인민들을 수탈하여온 낡은 조세제도의 종말을 선고하는 역사적 사변이다.』

순천린비료공장이 화학공업부문의 본보기로 훌륭히 일떠섰다

최근 조선의 과학자, 기술자, 건설자들이 적대세력들의 비렬한 제재압박과 악성비루스전염병으로 인한 세계적인 대재앙속에서도 하나의 새로운 공업분야를 창설하는 것과 맞먹는 현대적인 순천린비료공장을 훌륭히 일떠세웠다.

생산구역, 교양 및 생활구역으로 구분되어 있는 순천린비료공장은 원료투입으로부터 제품포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화, 흐름선화되어 있고 에너르기 절약형, 로력절약형, 환경보호형으로 이루어진 화학공업부문의 본보기, 표준공장이다.

순천린비료공장이 완공됨으로써 농업생산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둘째구가 열리고 농업전선의 튼튼한 병기창, 부강조국건설을 위한 또 하나의 만년재부가 마련되었다.



조선에서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는 언제 실시되었는가

조선에서는 전반적 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누구나 배움의 권리 를 마음껏 누릴수 있는 넓은 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다.

1956년에 전반적초등의무교육제를, 1958년에 전반적중등의무 교육제를, 1967년에 전반적9년제기술의무교육을 실시하였고 1972년 부터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점차적으로 실시하기 시작하여 1975년에 완전히 실시하였다. 2012년에 전반적 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할데 대한 법령을 채택하였다.

세상에는 의무교육을 실시한다고 하는 나라들이 없지 않다. 그러나 학령기의 모든 학생들뿐아니라 학령전아이들도 다 공부시키고 대학생들에게는 장학금까지 내주며 공부시키는 조선과 같은 나라는 찾아보기 힘들다.

의무교육은 무료교육에 의하여 안받침되어야 한다. 조선에서는 1959년부터 나라의 모든 교육기관들에서 무료교육이 실시되었다. 조선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 무료교육제도는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부담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하는 철저한 무료교육이라는데 그 특성이 있다.

사실 철저한 무료교육을 실시한다는것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든 문제이다.

그래서 웰남의 호지명주석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조선에서 무료교육을 실시하는데 대하여 부러움을 표시하면서도 자기 나라에서는 학생들에게서 수업료를 받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적자가 나기때문에 할수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말하였던 것이다.

조선에 190 여개의 기술고급중학교가 새로 나왔다

2020년에 조선에서는 전국적으로 190 여개의 기술고급중학교가 새로 나왔다.

중등일반교육체계를 개선할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의 한 고리로 전국각지에 금속, 석탄, 화학, 전기, 수산, 농산, 과수, 축산부문의 인재를 키워내는데 이바지하는 기술고급중학교가 이미 나와 운영되고 있다.

새 학년도의 시작과 함께 운영되게 될 190여개의 기술고급중학교는 정보기술부문의 인재를 더 많이 키워낼데 대한 조선로동당의 구상에 따라 나왔다.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것을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로 제시한 조선로동당의 의도를 철저히 관철하자면 그것을 담당수행할 인재력량이 충분이 마련되어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볼 때 정보기술인재를 더 많이, 더 질적으로 키워내기 위한 각 도의 교육경쟁은 지금부터 시작된것이나 다름없다.

조선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언제 실시되었는가

조선에서 전반적 무상치료제는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1953년 1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952년 1월 어느날 보건성의 한 일군을 부르시여 전체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자고 교시하시였다. 무상치료제에 얼마나 방대한 비용이 드는지 너무도 잘 알고있는 보건성의 일군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형편이 좀 곤난하지만 인민들의 생명을 적극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있어서 인민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였다.

그해 11월 13일에는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 제203호가 세상에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조선에서는 전쟁의 어려운 시기에 전반적무상치료제가 실시되게 되였다.

조선인민의 환희와 감격은 하늘땅에 넘쳐나고 충천한 기세는 원쑤들을 전률케 하였다.



평양산원에서 500 번째 세쌍둥이가 태여났다

2020년 3월 20일 조선의 평양산원에서 500번째의 세쌍둥이가 태여났다.

500 번째로 출생한 세쌍둥이의 몸무게는 2.09 kg, 1.92 kg, 1.33 kg이며 모두가 옥동녀이다. 산모와 세쌍둥이들은 지금 평양산원에서 유능한 의료진의 특별보호를 받고 있다.

평양산원창립 40돐이 되는 2020년에 500번째 세쌍둥이가 태여나 만사람을 기쁘게 하고 있다.

조선에서 세쌍둥이들이 끊임없이 태여나고 조국의 미래로 훌륭히 자라고 있는 것은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우월성에 대한 뚜렷한 과시이며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의 고마운 은덕이 안아온 응당한 결실이다.



조선에서 예견성있는 조치를 취하고 전체 주민이 국가의 비상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할수 있게 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조선이 《COVID-19》를 막기 위한 예견성있는 조치를 취할수 있은것은 인민중시의 정책과 관련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2020년 2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우리가 취하는 방역조치들은 단순한 방역사업이 아니라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업이라고 하시였다.

오직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언제나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것을 중대사로 여긴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보건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것은 예방의학적방침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건법 제3장 제18조에는 국가는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대책을 세우는것을 자기 활동의 중요한 임무로 여기며 예방에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고 규제되어 있다.

이번에도 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의 요구대로 비상방역사업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인민들의 생명안전을 지켜내고있다.

전체 주민이 국가의 비상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할수 있게 한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당과 국가에 대한 신뢰심이 깊이 뿌리내리고 나라의 주인이라는 자각이 있기때문이다.

조선로동당은 《모든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인민대중에게 의거하여!》라는 구호를 제시하고 그것을 당활동의 기본방식으로, 일군들의 활동방식으로 내세우고있다.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내놓는 시책들은 다인민을 위한것이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면 더 큰 행복이 온다는것을 오랜 체험을 통하여 신념으로 간직하고있다.

하기에 인민들은 언제나 당과 국가의 정책들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며 철저히 관철한다.

이번에도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가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비상방역조치를 취함으로써 《COVID-19》의 침습으로부터 자기들의 생명안전이 담보되고 있다는것을 절감하였다.

공화국의 인민들은 자기들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업에서의 주인도 자기 자신이라는것을 알고 비상방역사업에 적극 떨쳐나서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오늘도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의 지속적인 확산 추이에 대처하여 비루스류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계속 엄격하게 실시해나가고있다.



조선에서는 《COVID-19》를 막기 위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가

조선에서는 우선 선제적이며 결정적인 방역대책들을 취하였다.

조선에서는 중국의 무한에서 《COVID-19》가 발생한 첫 시기에 위생방역체계를 국가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에 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는 긴급조치를 취하였다.

국경과 지상,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COVID-19》가 들어올수 있는 통로를 선제적으로 완전히 차단봉쇄하였으며 국경, 항만, 비행장 등 국경통과 지점들에서 검사검역사업을 강화하고 각급 비상방역지휘부들에서 외국 출장자들과 주민들, 외국인들에 대한 의학적감시와 검병검진을 진행하여 의진자들을 빠짐없이 찾아내였으며 즉시 격리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모든 단위에서 국경연선지역에 대한 출장, 려행을 극력 제한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의 접촉을 완전차단하도록 하였으며 국가비상방역체계가 해제될 때까지 국제열차, 국제항로운영과 관광봉사를 중지하고 입국자들에 대한 격리 및 의학적 감시대책을 엄격히 세우도록 하였다.

국경주변에 입국자들을 격리시키는데 필요한 시설들을 갖추어놓고 의료품과 전력, 식량, 부식물, 먹는물, 생활용품 등을 원만히 보장해주도록 하였으며 해당 단위들에서 《COVID-19》 검사시약을 시급히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였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것을 금지하고 국내의 모든 학교들의 겨울방학을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위생방역사업과 관련한 공공질서, 개인규범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전체 주민이 방역사업에 주인답게 참가하도록 하였다.

신문과 텔레비죤, 방송을 비롯한 출판보도부문과 보건기관들에서 《COVID-19》의 위험성과 전파경로, 증상과 진단, 예방치료와 관련한 위생선전과 함께 국가에서 취한 방역조치들과 다른 나라들의 피해상황을 제때에 알려주기 위한 사업을 집중적으로, 실속있게 진행하여 모든 사람들이 이에 대하여 잘 알고

전염병 예방사업에 적극 동원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전체 인민이 한마음이 되여 《COVID-19》 전파경로를 차단하기 위한 사업에 떨쳐나섰다.

또한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보장해주고 과학연구사업을 따라세웠다.

《COVID-19》를 막는데 필요한 격리장소들과 환자발생시 치료할수 있는 장소들을 꾸리는 사업, 의약품과 개인위생용품, 소독약 등 막대한 비용이 드는 모든것을 보장하였다.

한편 격리된 성원들의 영양관리와 생활조건보장문제, 그들의 가정을 돌봐주는 문제를 비롯하여 전체 인민이 계속 안정된 생활을 누릴수 있도록 조치들을 취하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사업도 적극 추진하였다.

2020년 2월말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는 세계적으로 급속히 전파되고있는 《COVID-19》를 막기 위한 초특급방역조치 들을 취하고 엄격히 실시할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으며 이어 4월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회의에서는 세계적인 대류행전염병에 대처하여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대책을 더욱 철저히 세울데 대한 문제가 토의되었다.

정치국확대회의정신과 정치국회의결정을 받들고 공화국에서는 인민보위의 중대한 국가적사업인 《COVID-19》를 막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도높이 전개하고 있다.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에서 원시동굴유적 새로 발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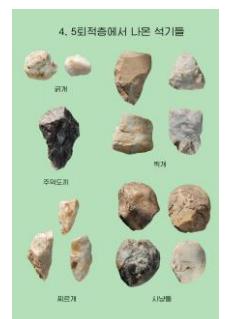
최근 조선의 연구사들이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에서 구석기시대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의 문화층이 차례로 겹놓인 원시동굴유적을 새로 발굴하였다.

력사유적들에 대한 조사와 발굴,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에 연구사들은 구석기시대 문화층(4층, 5층)에서 포유동물화석(짐승뼈화석) 9종에 1 650여 점과 석기 8종에 16점, 포분화석 280여 개를, 신석기시대 문화층(6층)에서 조선옛류형 사람의 이발 5개와 질그릇조각 40점을, 청동기시대 문화층(7층)에서 질그릇조각 10여 점을 찾아냈다.

연구사들은 구석기시대 문화층에서 발굴한 유물들에 대한 측정을 진행하여 형성년대가 3만 6 000~3만 4 000년 전인 구석기시대 후기의 것이라는 것을 확증하였다.

석기의 종류와 재료, 제작수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여기에서 나온 석기들도 구석기시대 후기에 널리 쓰인 로동도구라는 것을 해명하였다.

또한 신석기시대 문화층에서 발굴한 조선옛류형 사람의 이발은 신석기시대의 50대 여성의 것이고 신석기시대 문화층과 청동기시대 문화층에서 나온 질그릇조각들은 형태와 색깔, 무늬 등을 연구분석하여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의 유물이라는 것을



밝혀 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고고학학회와 비상설물질유산심의평가위원회에서는 유적 발굴과 연구정형을 심의하고 평양시 강동군 향목리동굴유적을 국보유적으로 등록하였다.

지난 시기 강동일대에서는 국가형성의 사회력사적전제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많이 발굴되였으나 인류역사의 혁명기에 해당되는 구석기시대의 유적과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향목리동굴유적이 새로 발굴됨으로써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이 묻혀있는 강동군일대가 구석기시대부터 사람들이 태를 묻고 살아온곳이며 현대 조선사람의 역사적뿌리가 내린 지역의 하나라는것이 과학적으로 해명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의 특징에 대하여

조선인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당과 국가의 최고령도자로 모신 때로부터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길지 않은 그 나날 조선로동당과 국가, 인민을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는 세계인민들의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그이의 정치에 대한 연구도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대하여 책임지고 있는 사회주의집권당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독특한 정치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알고 싶어하는 독자들을 위해 지난 4월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일군들이 가진 좌담을 협회통보에 련재한다.



오성철: 저는 2019년 10월 조선사회과학자협회대표단으로 아시아의 일부 나라들을 방문하였다. 그 나라들의 사회과학자들과 사회계인사들은 저를 만나 조선이 최근년간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있는 근본비결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매력적인 정치에 있다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하여 깊이 알고 싶어 한다고 하였다.

자리를 같이 한 기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의 특징에 대하여 이야기하자고 한다.

리성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여 인민중시, 인민사랑의 정치라고 할수 있다.

그이의 인민사랑의 정치의 특징은 우선 그이께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남기신 인민사랑이 담겨진 유훈을 하나하나 실현해 가시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와 승고한 인민적풍모를 지니시고 인민에게 존엄을 주고 행복을 주기 위한 지침들을 다 밝혀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주선으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구상과 뜻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관철하시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뿌려놓으신 사회주의만복의 씨앗을 풍만한 열매로 가꾸어가고계신다.



김창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최근에만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관철을 위한 사업인 순천린비료공장과 어랑천발전소 팔향언제, 양덕온천문화휴양지를 건설하도록 해주시여 인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이 그대로 가닿도록 하시였다. 지난 시기 21 세기 본보기 농장으로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을 건설해주시고 중앙버섯연구소를 비롯한 연구소들을 건설해

주신것은 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인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것이다.

문정숙: 어찌 그뿐이겠는가. 그이께서는 당과 국가강화와 혁명무력강화를 위한 모든 사업도 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대로 해나가고계신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에서 국가활동에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견지해오신 자주의 혁명로선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갈데 대하여서와 경제, 국방, 문화건설에서 주체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할데 대하여 천명하시고 혁명령도의 전과정에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가고계신다.



오성철: 예로부터 정치의 진보성과 우월성은 인민생활에서 나타난다는 말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의 특징은 그이께서 인민생활향상을 최우선 적인 과제로 내세우시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분투하고계시는데서도 찾아볼수 있다.

리정화: 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정치의 특징은 또한 그이께서 인민생활향상을 국사중의 국사로 내세우시는데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만난시련을 이겨내며 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인민에게 세상에 부럽없는 행복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련해주시겠다고 하시며 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구상을 펼치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실현해가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사회주의조선의 전략자산은 황금벌, 황금산, 황금해라고 하시며 전당과 전체 인민이 인민생활향상에 직접적으로 이바지하는 농업과 경공업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도록 하고계신다.

김창경: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농업전선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최전방,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주타격전방으로 정하시고 농업발전을 위한 과학적이고 정당한 로선들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領導하고

계신다. 그이의 구체적이고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80hp 뜨락또르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체질에 맞고 우리의 지형조건에 맞는 새로운 농기계들이 새로 많이 제작되어 농업생산에 리용되고 있다. 앞서 이야기하였지만 순천린비료공장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하에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자랑할만한 성과이다.

윤용남: 전국에 가방공장과 식료품생산 공장들이 일떠서고 고산파수종합농장과 평양메기공장을 비롯한 파수기지, 식료기지, 양어기지, 수산기지들이 나라의 도처에 일떠섰다.

그이께서는 지난 기간 혁명거리와 미래 과학자거리, 창전거리를 비롯하여 거의 매해 수천세대의 살림집을 가진 새 거리들을 일떠세우도록 하여주시였는데 그 하나의 사실만 놓고보더라도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그이의 승고한 정치상을 잘 알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조선에서 신랑신부와 사진을 찍파

인 훈



알하싼 맴맨 무함마드

2019년 4월 15일.

사람들의 꽃물결이 쉬임없이 흐르는 만수대언덕에 유효하게 안겨오는 장대한 기골의 한 아프리카인이 있다.

아름이 넘는 크고 화려한 꽃다발을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정중히 드린 그는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린다.

만수대언덕을 쉬이 내려서지 못하고 주체조선의 수도 평양의 웅장한 모습을 한눈에 바라보며 선 그는 누구인가.

그는 아프리카에서 널리 알려진 나이제리아의 철학박사이며 교수인 알하싼 맴맨 무함마드이다.

맴맨의 시야에 사람들의 꽃물결속에 섞인 신랑신부의 모습들이 유난히도 많이 보여온다.

결혼식 날자를 뜻깊은 4월의 명절에 정하고 새 가정의 새 출발을 만수대언덕에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에 삼가 인사를 드리는 것으로 폐고있는 이 나라 젊은이들의 정신세계는 얼마나 숭고하며 아름다운것인가.

맴맨은 결혼식을 하는 조선의 신랑신부와 함께 기념으로 사진을 찍고싶은 생각이 불쑥 들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자기 나라는 물론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외국인들을 경계하면서 저희들곁에 불지도 못하게 한다는 생각으로 망설이게 됨을 어찌 할수 없었다. 이 세상 그 어디에 가도 상대방이 자기에 대해 호의를 갖고있다는것을 알기 전에는 서로가 결을 주지 않는것이 보편적인 현실로 된것이다.

그런데 조선에 와서만은 왜서인지 마음속에서 뜨거운 그 무엇인가가 끓고있다.

『내가 저들과 함께 사진을 찍자고 해도 될가?』

맴맨은 주밋거리며 자기의 통역을 담당한 평양외국어대학의 처녀교원에게 조용히 물었다.

순간에 그 처녀의 하얀 이발들이 가쁜히 드러나며 노래처럼 즐거운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되지 않구요.》

그쯤한 일에 뭘 그리 심중하게 묻는가 하는듯한 예사로운 말투이다. 모든 나라들에서 심중히 생각해보고서야 할수 있는 대답을 너무도 쉽게 하는 그것 또한 그 어디에서나 볼수 없는 이 나라의 아름다움이다.

그제서야 자신만만하게 신랑신부앞으로 걸어간 맴맨은 거대한 몸집을 절반 꺾으며 조선식으로 정중하게 인사를 한다.

『축하합니다. 4월의 명절에 결혼식을 하는 조선의 신랑신부에게 한가지 청이 있어 왔습니다. 나는 나이제리아 아부자종합대학 교수입니다. 함께 사진을 찍어 주십시오. 난 그 사진을 우리 나라에 돌아가서도 조선을 생각하며 늘 보려고 합니다.』

신랑은 구면지기라도 만난듯 싱글벙글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아 이끈다. 『환영합니다. 4월의 명절을 우리와 함께 맞는 아프리카의 손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함께 사진을 찍읍시다. 우리도 즐겁게 이 날을 추억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자기를 아무런 의심도 없이 결에 세워주는 조선의 신랑신부 앞에서 맴맨의 가슴은 후더워졌다. 그는 신랑신부와 나란히 섰다.

《찰칵!》 《찰칵!》 …

처녀통역은 맴맨이 내미는 사진기를 받아가지고 연방 샤타를 눌렸다. 조선은 얼마나 평화로운 나라인가.

인생에서 중대사중의 가장 큰 중대사라고 할수 있는 결혼식날에 알지도 못하는 흑인손님을 반갑게 맞아주며 사진도 같이 찍어준다는것은 참으로 조선사회가 안정되어 있다는것을 말하여주는것이 아닌가.

이것은 세상사람들을 적수로 보며 항시 경계하며 사는 자본주의나라 사람들과 달리 그 누구든지 선량한 벗으로, 다정한 이웃으로, 가까운 친척으로 여기며 대하는 조선인민의 순후한 마음씨를 보여주는 하나의 실례이다.

세계의 마음과 마음들이 달려오는 만수대언덕에서 맴맨교수는 자기의 마음이 한없이 깨끗해지고 숭고해지는것을 온 폐부로 느끼며 천천히 총계를 내리기 시작 하였다.

앞에서 또 다른 신랑신부들이 꽂다발을 안고 올라온다.

위대한 어버이를 우러러 따르는 천만자식들의 존경과 흠토가 끝없이 물결쳐흐르는 만수대는 주체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승업함과 아름다움의 절정이였다.



《김정일동지는 어떻게 되여 세계의 존중을 받으시는가》

언제인가 중국의 《환구시보》는 《김정일동지는 어떻게 되여 세계의 존중을 받으시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의 김정일동지께서 서거하신 후 세계 각국은 각별한 반향을 보였다.

거기에는 모두 국제정치에서 차지하는 그분의 중요한 지위가 반영되어 있다.

벗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애도의 뜻을 표시한 나라들도 있다. 지어 적대관계에 있던 나라들까지도 그이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였다.

정치가로서 생을 마친 후 이런 특수한 영예를 지닌분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김정일동지는 어떻게 되여 세계의 존중을 받으시는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그이께서 위대한 민족주의자이시라는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 서거하신 후 그분께서는 확고한 결심과 굳센 의지로 조선인민을 령도하시여 외세의 위협과 압박을 반대하고 국내의 자연재해를 이겨냈으며 조선특색의 사회주의를 건설하는데서 세인이 주목할만 한 성과를 이룩하시였다. 벗이든 적수든 다 이러한 업적을 무시 할수 없는것이다.》

김정은령도자의 정치방식

중국 홍콩잡지 《국제련계》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건설된것은 인민을 끌없이 사랑하시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령도자들을 모시였기때문이다.

조선식사회주의의 영원한 생명력으로 되는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조선의 령도자들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 원천을 두고있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이민위천의 사상이 구현된 조선의 사회주의는 김정은각하의 인민사랑의 정치에 의해 더욱 공고발전되고있다.

수리아신문 《티슈린》은 김정은각하는 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와 다함없는 신뢰를 받고계시는 탁월한 령도자이시다. 그이께서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신다. 인민을 위하여 일군들도 령도자도 있다는것이 그이의 좌우명이다. 인민사랑은 김정은각하께서 펼치시는 정치의 최고원칙, 최상의 목표이다고 지적하였다.

체스꼬슬로벤스꼬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는 자주정치, 인민을 위한 사랑의 정치를 평나가시는 김정은동지는 절세의 위인, 현 시대의 가장 걸출한 정치가이시라고 찬양하면서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자주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힘차게 전진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2월의 명절과 건군절에 즈음하여

영국단체들 인터네트홈페이지에 특집

2월의 명절과 건군절에 즈음하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영국련대위원회가 인터네트 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홈페이지에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께서 김일성대원수께서 창건하신 조선인민군을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으로 키우시여 나라의 자주권과 주체의 사회주의를 영예롭게 지켜내시였으며 정력적인 혁명령도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막고 세계평화를 수호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시였다고 하면서 하기에 조선인민은 김정일대원수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있다고 전하였다.

*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홈페이지주소

<https://juche007-anglo-peopleskoreafriendship.blogspot.co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진정한 사회주의나라이자



더모트 하드손

-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책임자,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
영국조선친선협회 공식대표-

2019년 10월 7일부터 15일까지 나는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스코틀랜드 주체사상연구소조 그리고 영국조선친선협회대표단을 이끌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은 주체사상에 대한 나의 확신을 더욱더 굳게 하여준 의의 있는 방문이였다. 이번 방문은 나에게 있어서는 18번째이고 기타 대표단들에 한하여서는 2번째였다.

우리 대표단은 스코틀랜드조선친선협회와 스코틀랜드주체사상연구소조의 미셸 월즈와 영국조선친선협회 통보서기 제임스 테일러 그리고 나, 이렇게 3 명으로 구성되었다. 우리는 10 월 5 일 저녁에 출발하여 베이징에서 하루밤을 체류한 후 평양에 도착하였다. 무사증소유자통로에서 조금 지체되기는 하였지만 베이징을 경유한 우리 대표단의 려행은 비교적 순탄하였다.

우리는 10 월 7 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때는 평양의 아름다운 가을날의 오후였다. 평양비행장에서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정과장과 이해 4 월에 나의 안내였던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김형숙선생이 우리를 맞이하였다. 우리가 탄 소형빠스는 황금벌을 지나 평양으로 향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가을걷이계절이였는데 풍년이 듣것 같았다.

우리는 평양고려호텔에 들었다. 방문기간 우리는 훌륭한 환대를 받았으며 누구라 할것없이 모두가 우리들을 친절히 대해주고 도와주었다. 우리의 안내들인

정과장과 김선생은 우리들을 위하여 훌륭한 체류일정을 작성하였으며 우리의 방문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였다.

우리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김창경 교수로부터 3 차례의 강의를 받았다. 그는 주체사상에 대하여 2 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2019년 4월 시정연설 《현 단계에서의 사회주의건설과 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에 대하여》에 대한 강의를 1 차 진행하였다. 김교수는 우리들이 제기하는 질문들에 구체적인 답변을 주었다.

우리는 류원신발공장(2018년 9월 참관후 두번째)과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참관하였다. 류원신발공장에서는 기사장이 우리들을 맞이하고 안내하였다. 류원신발공장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말씀에 따라 몇년전에 현대화된 공장이였다. 평양의 서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이 공장은 현대적이며 최신식 건물들을 가지고 있고 태양에너지기를 리용하고 있었다. 기사장은 공장지붕으로 우리들을 이끌고가서 태양빛전지판들을 보여주었다. 공장에는 600명의 로동자들이 있으며 공장은 티 한점 없이 깨끗하였다. 공장에는 수영장과 체육관 그리고 직원식당도 있었다.(내가 가격사정사무소에서 일할 당시 직원식당에 식사를 요구하니 식사는 내주지 않고 《점심시간에 상점에 나가 샌드위치나 사먹으라!》고 말하던 생각이 났다. 무례한 인간들!) 그뿐만이 아니라 공장에는 남새밭도 있어 남새를 가꾸어 자급자족하고 있었다. 공장은 년간 백만킬로의 신발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것은 로동자 한사람당 생산량에서 높은 수준이라는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공장에 혁명적인 선전화들이 많이 붙어있는것을 보았다. 이것은 공장에서 사상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내가 기사장에게 공장에서 생활비의 차이에 대하여 물었더니 그는 실로 극히 적은 차이인 2대1이라고 말하였다. 자본주의세계에서 부자와 빈곤자와의 차이는 계산할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 이전 쏘련에서 수입에서의 차이는 10대1로부터 30대1로 벌어졌다. 실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평등한 사회이다. 우리는 또한 공장의 로동자들이 교육을 받아 자기의 지식을 넓힐수도 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다음으로 우리가 참관한 공장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이였다. 이 공장은 대동강기슭에서 가깝고 또 평양의 중심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 수도의 가까이에 공장을 둔다는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다. 공장의 안내일군은 공장의 뒤쪽에 있는 주택들을 가리키면서 공장의 로동자들이 자기의 일터로 오는데 2~3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였다. 내가 이전의 직업을

가지고있을 때 일하러 가는데 거의 1시간(때로 그 이상)걸리던 때가 생각났다. 공장에서는 비단천을 생산하고있었고 1 600명의 로동자들이 일하고있으며 그 대부분이 여성들이였다. 공장에서는 재자원화정책에 따라 부산물로 비누와 같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생산한 기계들을 가지고 운영하는 공장은 자력갱생공장이다. 작업조건에 대하여 물었더니 로동자들은 점심에 2시간의 휴식을 보장받는다고 하였다.(영국에서는 점심휴식시간이 30분이며 사람들은 점심휴식시간에도 일을 하고있다.) 안내일군은 또한 국가가 로동자들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조치까지 취하고있다고 말하였다. 공장에는 유치원과 탁아소, 체육관과 문화회관(영화관이 있는), 식당 그리고 야외체육장도 있었다. 휴식참에 앉아 조용히 휴식을 할수 있게 꾸린 양어못도 있었다. 공장의 로동자들은 공장구내에 나무도 심고 정원을 가꾸기도 하였다. 참으로 공장이 로동자들의 락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공장의 로동자들이 과학기술을 배우고 원격교육체계에 망라되어 공부를 하는 과학기술보급실도 돌아보았다. 영국에서는 로동자들과 지식인들사이에 커다란 장벽이 있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그러한 장벽이 전혀 없는것이 참으로 인상깊었다. 대표단통역을 맡은 김선생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책은 전체 인민을 과학기술인재화하는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다. 참으로 훌륭하고 고상한 목표이다. 공장을 떠나면서 나는 영국의 사회주의작가이며 예술가인 윌리암 모리스의 구상이 이 공장에서 현실로 되였다고 생각하였다.

적대적인 선전단체들은 평양이 《특권층들의 도시》라고 주장하고있지만 실지에 있어서 평양에는 수많은 공장들이 있으며 또 상점판매원과 접대원, 운전수, 도로관리원 그리고 낸로자들을 포함하여 수많은 로동자들이 살고있다. 우리는 문수물놀이장의 야외정원에 앉아 많은 낸로자들이 휴식하는것을 보았다. 우리는 유명한 모란봉에도 올라 아름다운 평양시의 모습도 부감하였다. 모란봉에서 산보하면서 우리는 많은 조선사람들이 태평스럽게 거니는것을 보았다.

조선혁명의 최고참모부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지도부인 조선로동당창건 74돐에 즈음하여 우리는 당창건기념탑과 당창건사적관도 참관하였다. 당창건사적관을 참관하면서 우리는 조선로동당을 창건하기 위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투쟁에 대한 해설을 들었다. 우리는 동평양에 있는 당의 두리에 뭉친 조선인민의 일심단결을 깊이있게 상징한 당창건기념탑을 참관하였다. 당창건기념탑은

만수대언덕에 있는 조선혁명박물관과 위대한 수령들이신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과 일직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일제식민지통치시기 일본제국주의자들은 이 지역을 비행장활주로로 리용하였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푸른 잔디가 펼쳐진 하나의 넓은 공지이다. 평양은 넓은 도시로서 비좁다는 감이 없다.

당창건기념일에 우리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 경의를 표시하였다.

우리는 평양에만 머물러있은것이 아니라 시내밖으로도 나갔다. 우리는 먼저 묘향산으로 가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과 위대한 김정일위원장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 올린 선물들이 전시되어있는 국제친선전람관을 돌아 보았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여러 조직들에서 올린 수많은 선물들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이. 웨. 쓰딸린대원수와 게. 엠. 말렌꼬브수상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올린 승용차들도 보았다.

령도의 계승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이 문제가 옳바로 해결되었다. 우리는 또한 이. 웨. 쓰딸린과 중국의 혁명적지도자 모택동이 올린 렬차들도 보았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찾아오는 많은 중국의 관광객들은 참다운 사회주의를 직접 체험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들이 올린 선물도 보았다. 우리는 어느한 경치좋은 곳에서 야외점심식사를 하였다. 오후에 우리는 보현사가 있는 묘향산력사박물관을 참관하였다. 반동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보현사에 불교절간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것이 진실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판문점도 참관하였다. 2017년 8월에 나를 안내하여준 조선인민군관이 판문점에서 우리를 안내하였다.

판문점은 1953년 7월 27일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정전협정에 조인함으로써 조선인민군에 당한 저들의 패배를 인정한 곳이다. 마크 클라크대장은 자기가 승리하지 못하고 정전협정에 조인한 첫 미군사령관이라는것을 고백하였다. 조선에서 참패만을 당하고있을것으로 하여 실지에 있어서 정전협상을 요구한것은 미국측이였다. 우리 대표단은 정전협정이 조인된 장소를 돌아본 후 판문각도 돌아보았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랜 대학들중의 하나인 992년에 창립된 고려성균관의 본래의 사적지도 돌아보았다. 포츠머스와 크기가 비슷한 개성에는 10개의 대학들이 있다.

우리는 경치좋은 박연폭포에서 맥주와 인삼술을 마시며 훌륭한 야외점심식사를 하였다. 나에게 있어서 이곳에 와보기는 처음이였다.

방문기간 우리는 조선사회과학자협회와 조선출판물교류협회, 대외문화련락위원회의 성원들과 만나 토론을 진행하였다.

18번째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면서 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령도아래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날로 번영하고 있는것을 보았다. 호텔상점의 가격들은 2018년 9월이나 다름이 없었으며 평양지하철도 표값도 5원으로서 2012년 9월이나 변함이 없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자니 아쉬웠다. 몇주일이나 몇달이 아니라 단며칠만이라도 더 체류하고싶었다. 런던에 돌아와보니 채링크로스지하역밖에서 집없는 사람들이 땅에 누워자는 모습이 보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우리는 거리나 지하철도에서 자는 사람을 단 한명도 보지 못하였다. 이 두 제도의 대조는 뚜렷하고 생동한것이다.

나는 우리의 평양방문이 성과적이였다고 생각한다. 나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대한 나의 신념을 새롭게 그리고 더욱 굳게 하였으며 주체사상의 승리를 위하여 더 힘차게 싸워나갈것을 결심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나는 이르는곳마다에서 번영하는 모습만을 보았다. 이번에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지방의 먼곳에 위치한 박연폭포에까지 가보았다. 정말 평양이 그립다. 나는 더 오래 체류하고싶었다. 평양의 기온은 24°C라고 한다.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런던의 거리들, 특히는 채링크로스와 킹즈크로스주변에 있는 수많은 거지들과 집없는 사람들을 보았다. 내가 사는 지역의 상점에는 짚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위한 식량기증함까지 있다. 참으로 충격적인것이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나는 단 한명의 집없는 사람도 빌어먹는 사람도 보지 못하였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 말을 타시고 백두산에 오르신 소식과 삼지연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흥분속에 읽었으며 오늘은 금강산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읽었다. 나는 그이의 자력갱생에 대한 가르치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미국과 괴뢰한국 등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력갱생만이 제발로 걸어갈수 있게 한다. 나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보다 위대한 국가로 만드실 것이라는것을 확신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장 옳바르게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으며 가장 좋은 사회주의나라, 진정한 사회주의나라이다.

나의 방문소감에 대하여 말한다면 단지 체류일정이 조금 짧은것이 아쉬웠다. 마지막날까지도 나는 활력에 넘쳤으며 제트증후군도 없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3~4 주정도 체류하고싶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의 웨브싸이트 www.kass.org.kp 가 정말 멋있다.



평양도착



평양고려호텔



주체사상탑참관



당창건기념탑참관



만경대 고향집



당창건사적관



국제친선전람관



보현사





평양교원대학

2019. 9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꽂혀나는 나라

베네수엘라 공산주의 청년대표단 단장 엑또르 로드리게스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들이 리용하게 될 유희기재까지 직접 타보시면서 그 안정성을 확인하시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세상에 인민을 위한다고 하는 국가지도자들이 많아도 그이처럼 인민을 끌없이 사랑하시는분을 역사하는 알지 못하고 있다.

절세위인의 품속에서 사는 조선인민의 행복에 넘친 모습을 보면서 인민이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조선식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폐부로 느끼게 되였다.

조선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인민의 락원이다.

인민을 위함이라면 저 하늘의 별도 따오시려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령도자로 모신 조선인민은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이다.

선군정치연구 네팔문학연단 위원장 쟁코리 바로띠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적대세력들의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자력갱생의 위력으로 자주권을 굳건히 수호하며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조선의 모습은 정말 놀라움을 자아낸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가 빛나는 결실을 가져오고 있다.

조선이야말로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꽂혀나는 나라이다.

조선은 행성의 미래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인터네트홈페이지에 글 게재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가 2020년 2월 28일 《행성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인터네트홈페이지에 올렸다.

글에서는 오늘날 행성에서는 정의와 진리가 제국주의자들의 《힘의 우위》에 의해 무참히 유린당하고 있지만 조선은 자주의 기치높이 힘차게 전진하며 자기식의 창조방식, 창조본때로 아름다운 미래를 앞당겨가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글은 인구수도 많지 않고 땅토도 크지 않은 나라, 그것도 적대세력들의 최대의 제재압박을 받는 조선이 경이적인 기적을 낳고있는 비결은 특출한 정치실력을 지니시고 나라와 인민을 백전백승의 한길로 이끄시는 정의와 진리의 위대한 수호자 김정은동지를 모신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글에서는 테로와 살륙, 분쟁으로 정든 고향을 등지고 정처없이 떠다니는 피난민들, 사랑과 정이 모조리 말라버린 땅에서 앞날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진정으로 인민을 위하는 사회주의락원에서 복된 삶을 누려가는 조선인민이야말로 행운아들이 아닐수 없다고 서술하였다.

그러면서 지금 세계인민들은 참다운 인민의 나라, 일심단결의 나라이인 조선을 가리켜 행성의 미래이며 인류의 미래이라고 격찬하고 있다고 썼다.

*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홈페이지주소

<https://juche007-anglo-peopleskoreafriendship.blogspot.com>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천만금의 재부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조선

베네수엘라의 인터넷홈페이지가 글 게재

베네수엘라의 어느 한 인터넷홈페이지가 2020년 3월 9일 《보건은 사회주의 영상의 주요징표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에서는 보건을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 인민들의 피부에 직접 닿는 사회주의영상의 주요징표로 보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에서는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사들이 일정한 주민구역을 담당하고 맡은 구역에 늘 나가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돌보며 예방치료사업을 하는 의사담당구역제가 실시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또한 먼거리의료봉사와 구급의료봉사를 비롯한 전문과적의료봉사사업이 끊임없이 개선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의 보건시책들은 철두철미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복무하며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실시되고 있다고 서술하였다.

이와 함께 조선에서는 당의 예방의학적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인민들이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것을 그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방도로 보고 질병을 미리 막기 위한 위생문화적인 로동환경조건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있다고 전하였다.

글은 조선에는 도처에 의료봉사기지가 훌륭하게 꾸려져있는데 이것은 조선이 다른 나라들보다 유족해서가 아니라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천만금의 재부보다 더 귀중히 여기기때문이라고 서술하였다.

* 《씨따라마가지네》 홈페이지주소

<https://sitaramagazine.com.ve>

* 《엘 끌루 데 라스 나씨오네스》 홈페이지주소

<https://elclubdelasnaciones.wordpress.com>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해주는 후대교육정책

조선의 교육교양기지들을 참관한 외국인들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였다.

수리아 바아스소년선봉대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후대교육사업을 나라의 흥망성쇠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로 내세우고 있다.

평양교원대학과 평양초등학원을 비롯한 여러 교육기관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독특한 교수방법이 리용되고 학생들을 위한 실습조건들과 현대적인 설비들이 원만히 갖추어져 있었으며 어디에나 학습과 관련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어 모든 공간들이 교육사업에 그대로 리용되고 있었다.

높은 학구열, 향학열에 넘쳐있는 학생들과 기쁨에 겨워 명랑하게 생활하는 원아들을 보면서 그들이 나라의 기둥감으로 훌륭히 자라나리라는 것을 확신 할 수 있었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참관한 세계민주청년연맹 부위원장은 많은 나라들에서 아이들은 초보적인 권리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재능있는 어린이들은 돈벌이 수단으로 리용되고 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당과 정부가 아이들을 위해 모든 조건과 환경이 교육학적요구에 맞는 훌륭한 궁전을 지어주고 재능의 짹을 찾아 키워주고 있다. 정말 조선의 어린이들이 부럽다고 걱정을 터놓았다.

로씨야련방 청년사업국대표단 단장은 조선의 령도자들의 뜨거운 후대사랑의 세계가 어리여 있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를 돌아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이런 곳에서 야영생활을 하려면 적지 않은 돈을 내야 한다.

명당자리에 자리잡은 야영소에서 평범한 학생소년들이 돈 한푼 들이지 않고 야영생활을 한다니 놀랍기만 하다.

야영에 필요한 모든것을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이것은 조선에서만 있을수 있는 현실이다.

필리핀 민족무도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아이들을 보배로 여기며 후대교육을 중시하는 나라는 끊임없는 발전의 길을 걸을수 있다.

조선의 현실이 이를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의 훌륭한 후대교육정책은 나라의 창창한 미래를 담보해 줄것이다.



주체사상이 왜 아프리카의 진정한 독립을 위한 유일한 지침으로 되는가

페디 카운도(우간다)

아프리카대륙의 서부사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이전 식민지 주인들로부터 독립을 이룩하였지만 실지에 있어서 현실은 그 어느 아프리카나라도 참다운 독립을 이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프리카나라들의 모든 경제 모델들과 사회정치적 및 종교제도들은 모두 우리의 것이 아닌 외국의 것이거나 또 외세가 강요한 것들이다. 오래동안 그러한 제도들은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또 지난 10년간 우리들은 저들이 잃어버린 식민지들을 얹어매기 위하여 이전 주인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놓은 영구적인 사회경제적 및 정치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발전계획들과 경제모델들을 찾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다.

이와 같은 경제모델들과 정치제도들이 응당한 결실을 보게 되지 못한 원인은 그것이 아프리카 사람을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만드는데 목적을 둈것이 아니라 그들을 값ぬ은 로력원천으로, 아프리카대륙을 선진국들을 위한 값ぬ고 마음대로 써먹을수 있는 원료원천으로 만들자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구조와 환경 그리고 문화구조에 부합되며 또 우리들로 하여금 자기의 잠재력을 리용하도록 하여주며 사람을 모든것의 중심에 놓는것으로 하여 우리들 자신이 자기 운명의 주인들로 되게 하여주는 하나의 사상이 있다. 그 사상이 바로 동아시아에서 기적들을 창조하고 또 서방나라들의 끊임없고 또 급진적인 제재속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당당한 초대국으로 개조변혁 하여준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람중심의 사상》이다. 문자그대로 《자력갱생》을 의미하며 자기자신을 역사의 창조자로 되게 하는 주체사상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식적인 사상이다.

우리는 주체사상을 가지고 우리 인민들로 하여금 자기 운명의 방향을

바꾸도록 하고 또 자기자신들을 믿게 하여 세대를 이어 우리 인민이 당하여온 자기 련민과 혈등감을 털어버릴수 있게 할수 있다.

하나의 사상으로서 주체사상은 다음의 세가지 중점들, 즉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그리고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밝혀주고있으며 바로 이것이 아프리카에 필요한것이다. 우간다대통령은 여러 계기들에서 이 사상들에 대하여 루차 언급하였다. 주체사상으로 하여 우간다대통령의 국방과 경제에서의 자력에 관한 사상은 결실을 보게 될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은 가장 발전된 물질적존재, 물질세계발전의 특출한 산물이다. 사람은 자연계에서 벗어나면서부터 이미 특출한 존재였다. 다른 모든 물질들이 객관세계에 종속되고 적응되어 자기들의 존재를 유지하지만 사람은 세계를 인식하고 변화시켜 자기에게 복무하게 만들며 존재하고 발전한다》고 보고있다.

사람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세계의 개조자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은 사람들의 활동과 나라의 발전을 위한 지도사상으로 된다.

바로 이러한 사상을 가지게 되면 우리 인민은 그 무엇을 위하여 그 누구에게 굴종하지 않게 될것이다. 우리 인민은 자기자신들을 믿기 시작할것이며 자기들의 복리를 제 3 자에게 양도하지 않을것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을 받아들이는것은 우리 대륙의 자결과 자력을 담보하여줄것이다.

주체사상은 대중을 혁명적으로 의식화하고 뜻어세워 자기의 혁명임무와 역사적사명을 수행할수 있게 하여준다. 이들이 자기의 혁명임무와 역사적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것은 당과 수령의 정확한 령도를 받는가 받지 못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주체사상은 국가의 사상으로서 그리고 정부의 유일한 지도적원칙으로서 나라의 정치경제적 및 군사적자력을 담보하여준다. 주체사상은 사람들이 자기 운명의 주인,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살며 일할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정치사상은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사상에 기초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대륙의 랙후성과 착취를 가져온 고질적인 의존을 타파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에 적용하고 또 선전하여야 할 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우리 대륙을 세계정치의 보다 높은 지위에 올려세우게 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와 같이 주체사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5 년에 한번씩

진행되는 무의미한 선거들에서 자원을 랑비하지 않도록 해주며 또 우리나라들에서 폭력과 무질서를 극복하게 할것이다. 그리고 무혈적인 정권교체를 보장하고령도자들로 하여금 다음번 선거에 대한 우려가 아니라 발전에 집중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게 될것이다.

주체사상으로 하여 우리들이 힘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자기 운명의 주인,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주인으로 되여 그 어떤 외부의 간섭도 성과적으로 물리치게 될것이다.



소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8돐에 즈음하여

영국에서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2020년 4월 12일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 그리고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에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조선친선협회지부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8돐에 즈음하여 인터네트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는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랄리아, 그리스, 쓰르비아, 슬로베니아 그리고 미국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브라질선군정치연구센터가 토론회에 축하문과 함께 브라질조선친선협회의 토론문을 보내왔다.

영국조선친선협회위원장, 오스트랄리아조선친선협회대표, 아일랜드주체사상 연구소조위원장, 미국조선친선협회대표, 쓰르비아조선친선협회위원장, 그리스 조선친선협회 성원을 비롯한 여러명이 토론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일성주석과 주체사상을 칭송하였으며 주체사상을 구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COVID-19》환자가 단 한명도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특별히 언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연구와 영국조선친선협회의 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방도들을 토의하였으며 경험들이 교환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 홈페이지주소

<https://juche007-anglo-peopleskoreafriendship.blogspot.com>

《김일성주석과 조선의 자강력》

방글라데슈에서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2020년 4월 13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8돐에 즈음하여 《김일성주석과 조선의 자강력》에 관한 주체사상인터넷전국토론회가 방글라데슈에서 진행되었다.

토론회에는 방글라데슈인민련맹, 주체사상연구소, 언론인주체사상연구소조, 선군정치연구소조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인사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 보고자와 연설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의 탄생 108돐에 즈음하여 조선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는 절세위인의 고귀한 생애와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고 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 자립적민족경제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해주시였기에 오늘 조선은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압살책동속에서도 자강력으로 승리만을 멀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 방글라데슈 데일리 나우로즈 홈페이지주소

www.NAWROJ.COM.BD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2월의 명절에 즈음하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인터네트토론회가 2020년 2월 12일로씨야에서 진행되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파로씨야, 우크라이나, 몰도바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 주체사상신봉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련합 총서기, 몰도바주체사상연구 선군청년동맹 위원장, 몰도바 뽐리드네 스팸로비예 주체사상연구 선군혁명반제협회 위원장, 전로 김일성주의연구보급협회 위원장,

로씨야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 소장, 우크라이나 《선 군 의 보검》 주체사상연구협회 위원장 등 여러 인사들이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정치가, 애국자의 전형》, 《김정일동지의 혁명위업계승에서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중요한 업적에 대하여》 등의 제목으로 토론을 하였다.

토론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특출한領導실력에 각국의 정계, 사회계인사들이 매혹과 찬탄을 금치 못한데 대하여 상세히 언급하면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나가는 조선인민은 김정은시대에 승리만을 멀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체사상과 선군정치연구협회 국제연합 홈페이지주소
juche-songun.livejournal.com
juche-songun.ru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 38돐에 즈음하여

영국에서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와 영국조선친선협회는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고전적로작 《주체사상에 대하여》 발표 38돐에 즈음하여 2020년 3월 29일 영국에서 인터네트토론회를 진행하였다.

토론회에는 영국, 아일랜드, 브라질 그리고 그리스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영국조선친선협회위원장이 토론회를 사회하였으며 브라질선군정치연구쎈터 책임자, 영국주체사상연구소조 서기장 등이 연설하였다.

토론회에서 연설자들은 위대한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금으로부터 38년전에 《주체사상에 대하여》를 발표하신것은 하나의 커다란 사변이였으며 이로작은 우리가 반드시 읽고 또 읽어야 할로작이라고 말하였다.

그들은 자본주의나라들이 도시들에서 늘어나는 비참한 죽음을 억제하기 위해 허우적거릴 때 주체사상의 조국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COVID-19》 환자가 나오지 않은 현실을 우리들자신이 보고있다고 하면서 주체사상은 하나의 단순한 사상이 아니라 인류를 하나로 단합시키고 세계를 평화롭게 전진시키기 위하여 진보적인류가 따라배워야 할 사상이라고 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였으며 결의문이 랑독되였다.

《현 세계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당성과 역할》

아시아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8돐에 즈음하여 인디아에서 《현 세계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당성과 역할》이라는 주제로 아시아지역 인터네트토론회가 진행되였다.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부리사장인 스리랑카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 파키스탄자력갱생연구협회 서기장, 네팔자력갱생연구회 위원장, 방글라데슈 주체사상연구소 명예위원장, 타이주체사상연구조직 위원장 등이 토론하였다.

토론자들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정당성과 생활력은 조선의 현실에서 뚜렷이 증명되였다고 하면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달성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 아시아지역 주체사상연구소 홈페이지주소

www.ariji.website

《주체사상과 자력갱생》

라틴아메리카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라틴아메리카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주체사상과 자력갱생》이 2020년 2월 14일 브라질에서 진행되었다.

라틴아메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과 주체사상신봉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먼저 브라질선군정치연구협회 위원장이 기조보고를 하였으며 베히고, 뼈루, 베네수엘라, 칠레, 폴롬비아의 주체사상연구조직 책임자들을 비롯한 여러 인사들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영도밑에 조선인민이 나라의 해방투쟁과 조국해방전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고 주체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지켜냈으며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현명한 영도밑에 정면돌파전으로 승리의 진격로를 열어가는 힘은 다름아닌 주체사상에 기초한 자강력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되었다.

* 라틴아메리카지역 홈페이지주소

www.juchelatino.americana.blogspot.com

* 브라질선군정치연구협회 홈페이지주소

<https://cepsongunbr.wordpress.com>

<https://www.youtube.com/channel/UC001pdZ7vaiksSDtyvlgmMG>

<https://www.facebook.com/CEPSBR>

《주체사상과 집단적자력갱생》

우간다주체사상인터넷전국토론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8돐에 즈음하여 우간다에서 《주체사상과 집단적자력갱생》에 관한 우간다주체사상인터넷전국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우간다의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한 토론회에서는 주체사상연구 우간다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함께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을 활발히 벌리고 조선인민의 자력갱생정신을 따라배워 아프리카현실에 구현해나갈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 우간다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홈페이지 주소

www.juche.com

자주, 민주, 발전에 관한 주체사상전국토론회

민주꽁고에서 진행

자주, 민주, 발전에 관한 주체사상전국토론회가 2020년 3월 1일 민주꽁고에서 진행되었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이며 민주꽁고로동계시민협회 전국 위원장인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민주꽁고공산당 중앙위원회 부총비서인 민주꽁고-조선친선 및 현대성협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토론회에서는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의 기조보고에 이어 여러 인사들이 토론을 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민주꽁고의 현실에 대해 주체사상과 결부하여

해설하였으며 토론회에서 발표된 최종선언은 민주꽁고의 번영을 위해 애국주의와 자력갱생, 창조성과 민족적긍지를 계발시켜나가며 민족경제를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올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 민주꽁고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홈페이지주소
www.jucheafrika.com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

벌가리아에서 토론회진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방력》이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2020년 2월 28일 벌가리아에서 진행되었다.

벌가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소조 책임자, 서기장, 성원들이 토론회에 참가하였다.

토론자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최근년간 국방분야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자랑찬 성과들을 련이어 달성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커다란 기여를 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토론자들은 이 모든 성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주체사상의 가치를 높이 들고 나라의 자립적민족경제도대를 튼튼히 다져온 결과이라고 주장하면서 조선의 현실을 오도하는 서방의 그릇된 선전을 배격하고 광범한 인민들이 조선을 똑바로 알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아프리카지역 주체사상연구위원회 창립 35돐을 기념하여

아프리카지역 인터네트토론회 진행

2020년 4월 14일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창립 35돐을 기념하여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의 주최로 인터네트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아프리카지역주체사상연구위원회 서기장이 기조보고를 하였으며 현시기 아프리카지역정세와 결부하여 주체사상보급에서 제기되는 문제들과 그 해결을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언급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드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